

'민주당 독점'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 잡음

광주시의회 개원 전에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나눠갖기 광양시의회·여수시의회 개원 전 의장단 미리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광주·전남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을 놓고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공식 선출 절차에 앞서 민주당 내 지방 의원들이 의장과 위원장 자리를 사실상 서로 나눠 갖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 선거구 출신 광역의원들이 자신들의 선거구 의장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일부러 상임위원장 직을 다른 지역구 의원에게 양보하는 등 불쌍사나운 자리 다툼을 하고 있다.

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재선 의원 3명이 의장 경합에 나섰고 최선 의원 중심으로 운영위원장 등 5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시의회 차원

의 정식 의장, 위원장 선임 절차가 있지만 전체 23석 중 22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상 자신들의 입맛대로 의장과 부의장, 위원장을 배분하고 있다.

이들 민주당 시의원들은 최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 후보 3명, 부의장 후보 3명, 각 상임위원장 1~2명씩 입후보하기로 입을 맞췄다.

광주시의회는 4일까지 의장단 후보 등록을 받아 9일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4명과 운영위원장 1명은 13일과 19일 각각 뽑기로 했지만 사실상 독점 정당인 민주당 시의원들이 사전에 의장단을 선출해 버린 셈이다.

또한 이 과정에 의장에 도전하는 한 시

의원과 국회의원 선거구가 같은 다른 의원 2명이 애초 위원장 후보에 등록했지만 돌연 사퇴했다. 이에 문제가 된 의장 후보가 속한 국회의원 선거구에는 총 3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의장 선거를 돕기 위해 위원장 자리를 다른 지역구 의원에게 양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남지역 정가에서도 '민주당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다. 광양시의회에서는 의회 개원일이자 의장을 선출한 지난 2일 시민단체가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개회도 전에 의장을 추대한 데 대한 항의였다. 13석 가운데 11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에 추대한 김성희 의원은 광양시의회 첫 여성 의장이 됐다.

여수시의회에서도 의장 선거를 하루 앞둔 1일 경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서완석 의원이 다음날 의장으로 선출됐다. 같은 당 이상우 의원은 본 투표 당일 후보

사퇴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민주당이 독식할지, 다른 정당에 배분할지를 두고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다.

의장 선거 전에 상임위원장을 약속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구태도 여전하다. 민주당 5명, 무소속 3명으로 이뤄진 영광군의회는 민주당 의원이 의장을 맡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한 자리는 협치 차원에서 무소속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 4명, 무소속 3명인 곡성군의회는 민주당 3명과 무소속 1명 등 4명이 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져 2명의 지지만 받아도 당선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사실상 민주당의 의장단 독식은 우려됐던 것"이라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선 의원들도 대거 당선이 됐는데 이들의 첫 행보가 '자리 다툼'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광산갑 지역위원회 내부 갈등 논란

일부 당원들 지방선거 공천불복 항의 집회

지역위원장 실사 앞두고 상대 흡집내기 해석도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회 일부 당원들은 3일 광산구 월곡동 이용빈 지역위원장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 앞에서 공천불복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순번 결정 과정의 문제점과 구의원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88명의 상무위원의 실제 거주지역 등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집회에 참가한 김승진 민주당 광산갑 부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미 선거가 끝난 시점에 공천에 대한 불공정을 주장하는 것은 지역위원장 후보들을 상대로 4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실사에서 유력 후보를 흡집내기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

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공천의 경우 "광주시당 공천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을 할 것이며, 이번 문제를 제기한 특정 당원을 시당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해명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같은 갈등상황에 대해 다음 달 지역위원장 선출을 놓고 상대방 흡집 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위원장의 경우 다음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만큼 지역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불거진 것 같다"며 "앞으로 이 같은 경쟁이 더욱 격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지방의회 '여풍' 거세다

북구·광양·해남군의회 여성 의장 잇따라 선출

광주·전남 지방의회에서 잇따라 여성 의장이 탄생하고 있다.

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 북구의회는 이날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 재선인 고점례 의원을 선출했다. 부의장 역시 여성의원인 주순일 의원이 당선됐다. 고 의장은 광주 북구의회 사상 첫 여성의장이자, 고 의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한반도 평화의 바람이 가득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로 변화하기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자"고 말했다.

광양시의회도 전날 제8대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김성희 의원을 선출했다. 김 의장은 제6대 의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이후 3선과 함께 시의회 첫 여성 의장이 됐다.

김 의장은 "제8대 의회는 15만 시민의 성숙된 시민의식에 부응하면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면서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군의회도 전날 이순이 의원이 사상 첫 여성 의장에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신임의장은 제6대 의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3선 의원이다.

이 신임 의장은 "집행부에 대해 냉철한



고점례 의장 김성희 의장 이순이 의장

판단과 비판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동반자적 관계에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뤄내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방의회가 아직 의장단 선거를 하지 않은 곳이 많아 여성 의장과 부의장 배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장선거를 앞둔 광주 서구의회 등에서도 여성의원들이 의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58명의 의원 중 여성 의원 8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남에서 과거 여성 부의장은 종종 있었지만, 여성 의장은 탄생하면서 여성 정치인들이 지역정가의 주역이 되고 있다"면서 "여성 정치인들이 청소년과 장애인 등 사회 약자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장마철 포트홀 신속 복구

3일 광주 북구청 건설과 도로팀 직원들이 두암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움푹 파인 포트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시 근대건축물 기록 디지털 방식 전환

3D모델링·VR 영상 등 바뀐

광주시는 2010년부터 추진한 근대건축물 기록보존사업을 올해부터 디지털 아카이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기존 도면·보고서 등 평면적인 기록보존 방식을 넘어 3D모델링, 가상현실(VR) 영상, 3D에니메이션 제작 등 디지털 변환작업으로 바뀐 것이다. 시는 근대건축물을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할 때 스토리텔링의 기초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은 일신방직 내 발전소, 보일리실 1·2, 고가수조 등이다. 지난 3월 중순 시작해 10월 중순까지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

1935년 북구 임동 100번지에서 공장을 가동한 일신방직은 광주산업화의 시발점이 된 근대산업 유산이다. 일신방직 부지 4만3000여 평에는 1930년대 공장 설립 당시 지어진 화력발전소, 집진시설, 고가수조(물탱크)와 저수지, 목조 공장건물 등 80년 이상 된 건물과 구조물들이 산재해 있다. 또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직원들이 세운 해방기념 국기게양대가 남아있는 등 광주 근·현대사의 애환과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광주극장, 남동성당, 기독교병원 관사, 광주기계공고 등 1930~40년대 지어진 건물들을 대상으로 기록보존 작업을 진행해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근로청년에 생활안정 비상금 준다

청년비상금통장 200명 모집

광주시가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생활안정 비상금을 준다. 광주시는 3일 "임금소득이 낮은 근로청년에게 소액의 단기 저축을 지원하는 '청년비상금통장' 참여자 200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비상금통장은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10개월 동안 저축하면 시가 100만 원을 더해 200만원의 저축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광주시가 벌인 '광주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 연구' 결과 청년들의 부채 문제가 소액대출에서 시작돼 악성화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추진했다.

조사 결과 저축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청년이 2명 중 1명 있었고, 생활비를 제외하고 여윌돈이 전혀 없다는 청년이 4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등은 청년, 전문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청년드림 금융복지기획단(TF)을 통해 의견을 모았다. 참여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근로청년으로 세전 근로소득이 60만2000원 이상 167만2105원 이하 청년이다.

휴일을 포함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직접 방문해 제출서류를 접수하거나 대리인 접수도 가능하다. 최종선정자는 8월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결같은 믿음, 좋은 시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스마일장비 2대 운영
- Best Skilled 닥터 선정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년 1.75% 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 땅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 원금, 이자 빠고 8~10% 가능

땅만 빌려주실 분 ▶ 20년후 기부채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햇빛 농사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